

남진 콘서트 '아직도 못다한 노래' 22일 광주문예회관

변치않는 감미로움... 올드팬들에게 아련한 향수를

'가수왕', '영원한 오빠'로 불리는 남진은 감미로운 목소리와 현란한 무대 매너로 오랫동안 팬들을 매료시켰다.

'서울 플레이 보이'로 처음 대중 앞에 선 가수 남진은 데뷔 45주년을 맞은 지난 2010년 '넵과 함께 45년 전국 투어'를 진행했다.

그 열풍은 2011년까지 이어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두차례 공연을 전석 매진시켰고, 10월에는 서울 올림픽홀에서 앙코르 공연도 가졌다. 전국 30개 도시 투어가 이어졌고, 광주 공연도 큰 성공을 거두었다.

남진이 2012년 새로운 투어를 시작하는 '2012 남진 콘서트-아직도 못다한 노래'의 첫 스타트를 광주에서 끊는다. 22일 오후 3시~7시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누구나 알고 있는 수많은 히트곡을 보유하고 있는 남진의 이번 공연은 부모님을 위한 추서 선물로도 제격이다.

남진이 이번 무대에서 부르는 노래는 30여곡을 넘는다.

관객들을 들뜨게 할 신나는 곡 '동지'와 '나에게 애인이 있다면'으로 문을 여는 이번 공연에서는 자신의 대표곡 뿐 아니라 팝송 등 다양한 곡

을 선사할 예정이다.

KBS '불후의 명곡' 등에서 후배 가수들이 불렀던 '빈잔', '마음이 고와야지', '그대여 변치마오', '꽃분이', '울려고 내가 왔다' '아랫마을 이쁜이', '사람 나고 돌 낫지' 등도 셋 리스트에 포함됐다.

'한국의 엘비스 프레슬리'로 불리는 남진은 이번 무대에서 엘비스 프레슬리의 'Its now or never', 톰 존스의 'Venus' 등 흥겨운 팝송도 들려준다. 또 최근곡인 '나야 나', '너 말이야', '이력서' 등도 만날 수 있다.

1966년 '형수'와 '가슴 아프게'로

'동지' '나에게 애인이 있다면' 등 30여곡 선사

재치있는 입담, 관객과 즐거운 대화의 시간도

영화계에 데뷔했던 남진의 출연작인 '미워도 다시 한번'의 영상과 그의 대표곡 '넵과 함께' 뮤직 비디오는 올드팬들에게 향수를 느끼게 해준다.

또 재치있는 입담을 자랑하는 그가 관객들과 나누는 대화도 콘서트를 즐겁게 하는 또 다른 요소다.

1965년 데뷔한 남진은 1967년

MBC 신인상 및 10대가수상을 수상한 것을 시작으로 TBC방송가요 남자 가수상 대상 3회, MBC 10대 가수상 3회 등을 받았으며 지난 2005년에는 문화관광부 보관문화훈장을 받았다. 티켓 가격 9만9000원~6만6000원. 문의 062-220-054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다형 김현승 시혼 기리며...

22일 '다형문학제'... 전집 출판기념회도 열려

광주를 대표하는 문인인 다형 김현승(1913~1975) 시인의 시혼을 기리는 문학제가 열린다.

다형 김현승시인기념사업회(회장 손광은 전남대 명예교수)는 오는 22일 오후 2시 광주남구문화회관에서 열린다. 김현승의 시혼을 기리는 '2012 제 4회 다형문학제'를 개최한다.

이날 문학제에서는 시인 김규래 씨 등이 김현승의 시 '눈물' 등을 낭송하고 정찬경 광주대 겸임교수(바리톤)와 송순섭 명창은 각각 시 음악 '가을의 기도', 판소리 '산줄

기에 올라'를 들려준다. 그의 작품세계와 문학사적 위상을 알리는 학술발표도 이어진다.

이근배 시인은 '모국어의 기도, 그 시혼의 순결성'을 주제로, 김순배 경희대학원 교수는 '시인 그리고 아버지 다형 김현승'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또 '다형김현승 전집' 출판기념회도 열린다. 이번에 발간된 '다형 김현승 전집'에는 다형이 생전에 노래했던 300편에 가까운 시편들과 그의 남다른 고뇌가 담긴 에세이 작품들을 수록해 시인의 시 세계



변모과정을 감상할 수 있다. 한편, 김현승 시인은 '가을의 기도' '눈물' '절대 고통' 등의 시를 남겼으며, 인간의 고통과 고뇌를 시로 옮겼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고급 돌 이야기' 15~11월22일 옥과미술관

돌로 만든 명품백

돌로 만든 가방인데, '명품'이다. 양문기씨가 15일부터 오는 11월 22일까지 도입 전남도 옥과미술관에서 여는 '고급 돌 이야기'(Story of LUXURY STONE)전은 '고급 돌'(Luxury Stone)로 가득하다.

돌덩이들을 가방 모양으로 깎아낸 뒤 그 위에다 명품 로고가 새겨졌다. 이른바 '명품'은 눈이 즐거울만하다.

이번 전시에는 작가가 우리나라의 길이나 강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자연석을 사용해 만든 '돌가방'이 관객들에게 선을 보인다. 원석의 느낌을 드러낸 돌의 표면에는 한결같이 루이비통, 구찌 등 명품 브랜드 로고



가 새겨져 있다. 물질 문명의 현대 사회를 약간 비틀어 꼬집는 방식이 기발하다. 평범한 돌에 일상 속 소품을 넣어 언제부터인가 인간의 욕망을 대변하는 물건으로 자리잡은 가방이라는 소재를 택해 의미를 부여한 비판적 의도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작품도 적지 않다. 작품 속 돌은 옥방의 무게이면서 현실의 무게로도 받아들여진다. 문의 061-363-7278 /김지을기자 dok2000@

노무현 전 대통령을 기억합니다

'탈상(脫傷)-노무현을 위한 레퀴엠' 발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3주기를 기념하는 추모 앨범 '탈상(脫傷)-노무현을 위한 레퀴엠'이 13일 발매됐다.

앨범은 노 전 대통령을 위한 노래들을 영상으로 기록한 DVD 1장, 노래가사 및 곡해설, 노 전 대통령의 사진 등을 수록한 스토리북 1권으로 구성됐다.

음반은 '탈상' '노무현을 위한 레퀴

엠' 등 두 개의 파트로 나뉘어 있다. '탈상'에는 윤일상이 곡을 쓰고 가수 이은미가 부른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가수 신해철이 작사·작곡한 '굿바이 미스터 트러블(Goodbye Mr. Trouble)' 등 9곡이 실렸다. '상록수' '부산갈매기' 등 두 곡에는 노 전 대통령의 생전 육성도 담겨 있다.

'노무현을 위한 레퀴엠' 파트에는 노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시민 100여



명의 목소리를 모아 제작한 '시민레퀴엠', 가수 안치환이 부른 '임을 위한 행진곡' 등 6곡이 담겼다. 앨범 제작비는 시민 후원금 1억 6000여만 원과 참여 뮤지션들의 재능 기부 등으로 충당했다. 디지털 음원은 14일부터 공개된다. /연합뉴스

기은 기의현 선생 학문세계 조명

15일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 학술발표회

기은(棄隱) 기의현(1587~1653) 선생의 생애와 학문 세계를 조명하는 학술발표회가 15일 오전 10시30분 광주시 남구 구동 광주향교 유림회관 2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행주 기씨 기은공종중(회장 기한성)이 주최하는 이번 학술발표회에서는 오종일(전주대 교수), 김대현(전남대 교수), 김봉곤(순천대 교수) 씨가 각각 기은 선생의 철학사상, 문학사상, 충의사상에 대해 발표한다. 이번 학술발표회는 기은 선생의 유

교를 갈무리한 책 출간을 기념하기 위해 열리는 행사다.

조선 중기 선비로 고고한 삶을 살아온 기은 선생은 1627년 강홍립 등이 위키나 군사를 인도하여 침입해 오자 거의도유사(學義都司)가 되어 군사를 모집하고 군량미를 조달했으며 병자호란 때도 군사를 일으켰다.

기은 선생은 '주역' '심경' 등을 깊이 연구했으며 저서로는 '기은유고' 1권이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비엔날레 작가 전준호·문경원 조명

16일, SBS '경계를 넘다 K아트' 방영

SBS는 16일 밤 11시 한국 현대미술을 다룬 특집 다큐멘터리 '경계를 넘다 K아트'를 방송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국립현대미술관이 주최한 '올해의 작가상 2012'전의 1차 전시 작가로 선정된 4팀을 중심으로 한국 현대미술의 가능성과 과제를 조명한다. 제작진은 세계적인 현대미술 전시

회 카셀 도큐멘타에 초청된 문경원, 전준호 작가의 신작이 탄생하는 과정을 카메라에 담았다.

또 시드니 비엔날레에서 찬사를 받은 이수경 작가의 전시현장과 미국 워커 아트센터에서 열린 임민욱 작가의 개인전 현장을 소개한다.

아울러 임 작가의 국내 미공개작인 '히트 오브 섀도우(heat of shadow)'를 방송 최초로 공개한다. /연합뉴스

SINCE 1982

창업 30주년  국제보청기

30% 할인봉사 OFF SALE

www.kjhr.com



국제보청기 독일 한사톤 (HANSATON) 정품만 취급합니다.

본점 062) 227-9940 총장점 062) 227-9970
 목포점 061) 262-9200 장흥점 080) 222-9975
 서울점 02) 765-9940 순천점 061) 752-9940

연말 송년모임 예약 받습니다.

30년을 지켜온

요리전문 비즈니스 호텔그 명성 그대로~

건강한 우리 음식으로 즐거운 만남을~

중·소 규모의 세미나도 아리랑하우스의 한정식으로 더욱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금수장호텔·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효플러스 건너편)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착한 가격의 편안한 객실, 세미나, 회식 등 각종 모임을 위한 연회장, 접객실, 편리한 주차, 성공적인 만남을 위한 커피숍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www.geumsoojang.com